

해남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

대출보증 3000만원→5000만원 확대
수수료 최대 30만원 이자 3% 2년간
신규 창업시 임차료 최대 300만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목표 등

해남군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섰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화된 경기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남군 특례보증 3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3종 사업은 해남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해 지급보증을 서는 대출보증을 비롯해 대출시행에 따른 보증수수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대출보증은 지난해 1인 30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보증수수료는 최대 30만원, 대출이자 3%를 2년간 지원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올해는 소규모 점포경영 개선사업 보조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배달수수료는 업체당 80만원, 최대 100개소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에 지급되는 카드수수료를 업체당 26만원에서 3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1개월, 10만원에서 2개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전남도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연 매출기준 1억400만원

이하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30만원(월 1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신규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를 월 25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승계·확장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풍수해보험료,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지원, 공공배달앱 '떡까비' 활성화 사업 등 올해에

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강진군, 소득기준 140% 이하

강진군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관내 주소를 둔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전남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청방법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세부 내역 산정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4),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인구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 해남군, 정책 모든 분야

해남군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유입 확대, 정주인구 유출방지 등 해남군 인구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해남군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간은 오는 2월 21일까지이다.

참여방법은 이메일(hey1234@korea.kr), 우편(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 200만원을 비롯해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등 총 7명에게 590만원의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와 소통넷에 게시돼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관계자가 팔금면 옐로우정원에 식재된 수목에 물을 주고 있다. 신안군은 정원, 가로수, 생활환경 주변 소목에 대해 철저한 물주기를 통해 수목 고사를 예방할 방침이다.

신안군, 겨울 수목 보호 물주기 활동

신안군이 건강하게 월동할 수 있도록 최근 심은 정원수와 가로수 200만그루에 물 주기를 진행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목이 겨울철 휴면기에 접어들지만 상록활엽수와 침엽수는 겨울에도 증산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비한다.

수피가 얇은 수목은 동해 피해를 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이 동결되기 전 충분히 물을 공급해 겨울철 수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동해 피해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수피가 갈라지거나 목질부까지 갈라지는

상열 현상이 있으며 수목의 수세를 약화하고 해충 침입을 유발할 수 있다.

신안군은 지역과 날씨를 고려해 철저한 관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목들이 겨울철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안군은 정원, 가로수, 생활환경 주변 수목에 대해 철저한 물 주기 등 사전 준비로 수목의 고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미식관광 활성화 지역 맛집 추가 지정

해남맛집 총 9곳

해남군은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 6곳을 '해남맛집'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해남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은 도화지(해남읍), 대동명품한우(북평면), 돌고래식당(삼산면), 궁전회관(황산면), 대선정가든(송지면), 팥밭정인숙칼국수(현산면) 등이다.

해남맛집은 지난해 진미식당과 서성식당, 성내식당 3개소가 지정된데 이어 이번

에 6개소가 선정돼 총 9개소로 늘어났다. 도화지 식당은 해남읍 읍내길에 위치해 있다. 해남시 보리굴비와 계절한정식을 선보이는 음식점이다.

대동명품한우는 해남 특산물인 황칠을 이용한 갈비탕과 숙성 돼지갈비를 메뉴로 하고 있다. 돌고래식당은 해남 대표 먹거리인 닭코스 요리와 생갈비를 숯불에 구워 내는 요리법으로 유명하다.

황산면의 궁전회관에서는 아나고 주물럭과 장어탕 등을, 송지면 대선정 가든에서는 하모샤브샤브와 닭코스 요리를 취

급하고 있다.

현산면 구산리 정인숙칼국수는 해남산 팔로 만든 팔 칼국수와 해물 칼국수를 판매하고 있어 미항사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자주 찾는다.

해남맛집은 공고를 통해 모집 및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해남군 대표음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군은 해남의 맛집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채널인 '미미(味美)원정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자격증 응시료 지원 19~49세 미취업 청년 대상

완도군은 청년 구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19~49세 미취업 청년으로 2024년 12월 1일 이후 어학(8종), 한국사, 국가 자격증(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을 실제로 응시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 최대 2회 가능하며 응시료 및 교재비를 1인당 합산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험 종류(749종)는 어학 8종(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오픽, 텀스, 지텔프, 플렉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가 기술 자격증(493종) △국가 전문 자격증(247종)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매월 1~10일(1월은 8~15일)에 완도청년센터 '완생'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ahee246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 다음달 15일경 응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누리-군청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친환경농업 유용 미생물 공급 영암군, 16일부터 재개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덕진면 미생물 배양센터 증축과 장비구축으로 잠시 중단했던 친환경농업 유용 미생물 공급을 오는 16일부터 재개한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기 3대를 고성능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자동포장기도 설치한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연간 200톤 수준이었던 미생물을 앞으로 300톤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부터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미생물 공급처를 추가 운영해 매주 삼호읍은 화요일 오후 1시~5시, 덕진면은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미생물을 공급한다. 주어진 요일과 시간에 미생물 배양센터를 방문하면 1주일에 농가당 합산 2~50ℓ의 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미생물 주머니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급금액은 리터당 2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공급하는 미생물은 4가지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이며 토양살포시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 이 미생물들은 작물 면역력을 높여 병충해 발생 빈도를 낮추고,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에 이용할 경우, 약취 감소와 가축 질병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유용 미생물 공급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팀(061-470-6627·6625)에서 한다.

이정영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가 미생물을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만들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